

# 웹 만화 『위대한 캣츠비』의 스토리텔링 구조 분석\*

이상민\*\*

1. 웹 만화 『위대한 캣츠비』의 등장
2. 웹을 통한 서정성 획득
3. 3중 구조에 따른 서사적 층위
4. 바라봄과 보여짐의 층들을 통한 관계 맺기
5. 맺음말

## 국문요약

웹 만화 『위대한 캣츠비』는 웹의 매체를 이용한 서정성 획득, 3중 구조에 따른 서사적 층위, 등장인물들의 내적 성장 이야기의 특성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대중들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게 하였고, 웹 만화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대한 캣츠비』의 두루마리 형식의 읽기는 웹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연속성이 강한 이미지를 나열함으로써 끊임없이 읽어내려가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배열함으로써 여백을 통한 감성을 창조해 냈으며, 천연색을 사용하여 영상성을 표출함으로써 서사적이면서도 서

\* 본 연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6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1-06-4002-001-24021-00-013에 의거한 것이며, 과제명 "휴 이야기를 통한 만화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 로봇 적용 기술 연구"로서,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가톨릭대학교 멀티미디어연구소, (주)키즈엔터테인먼트와의 협동 과제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가톨릭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위대한 캣츠비』에 등장하는 세 개의 보조 플롯은 단조로울 수 있었던 멜로 이야기를 좀 더 복잡하게 얽히게 함으로써 사랑에 대한 중심 플롯을 다양하게 변주시키면서 이야기에 풍성함을 더해주었다. 여기에 현실적 층위, 위선적 층위, 몽환적·환치적 층위의 3중 서사적 층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극적 긴장감을 작품의 끝까지 팽팽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바라봄과 보여짐의 과정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한층 성숙해지는 성장의 과정을 담아내어 사랑에 대한 인간의 내적 욕망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독자들의 감수성을 올리는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확립시켰다.

## 주제어

위대한 캣츠비, 웹 만화, 스토리텔링, 웹 미디어의 특징, 서사적 층위

## 1. 웹 만화 『위대한 캣츠비』의 등장

만화는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통합적 의미를 창출해 내는 장르이다. 또한 만화는 글과 그림이 상보적인 입장에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칸과 면에 의해 공간과 시간을 창출해 낸다. 특히 만화는 지식이 낮은 계층에서부터 반문화적인 수용자들과 지식층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모든 계층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대중문화적인 특성도 갖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넘어오면서 디지털인프라는 만화를 웹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잘 구축된 인프라 환경 속에서 연재를 시작한 만화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웹 만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웹 만화는 강풀의 『순정만화』와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에서 출발했다. 이들의 웹 만화는 종래의 출판 만화와는 다른 형식적 특성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폭발

적인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만화는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원작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만화는 게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도 원작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위대한 캣츠비』는 미디어 다음에서 2005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부 72화가 연재된 이후, 단행본 6권으로 출판되었고, 현재는 뮤지컬과 드라마로 상영, 제작 중이다. 만화가 원작산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림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물로의 변환이 쉽고, 글과 이미지에 의한 서사가 내재되어 있어 캐릭터나 플롯을 형상화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화는 대중들에게 손쉽게 다가가서 시장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만화는 장르만화, 학습만화, 교양만화, 웹툰, 웹 만화 등의 여러 장르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구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은 웹 만화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웹 만화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캣츠비』가 웹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떤 형식적 특성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서사적 구조를 고찰해봄으로써 웹 만화의 스토리텔링 특성을 파악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웹을 통한 서정성 획득

『위대한 캣츠비』는 캣츠비와 6년 간 사귀던 여자친구 페르수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떠나버린 후 벌어지는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우정, 배신에 대해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20대의 사랑에 대해 다분히 멜로적인 감수성으로 접근하고 있으면서도,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웹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만화는 매 회마다 단편적 이야기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는 웹툰이었다. 그런데 웹 만화는 매 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지는 웹툰과는 달리 긴 호흡을 가지고 연재하는 장편의 서사만화이다. 출판만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사성이 웹 만화에 적용된 것이다. 동시에 『위대한 캣츠비』는 서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대한 캣츠비』가 스토리텔링을 지닌 만화이면서도 감수성을 자극하는 서정성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를 웹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연관지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총 72회 연재된 『위대한 캣츠비』는 다양한 플롯을 가지고 서사를 구현하면서, 웹의 매체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서정적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캣츠비』가 웹 만화로서 가지는 형식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두루마리 형식의 읽기, 의도적인 칸의 배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영상성이다.

만화는 칸과 칸 사이의 여백을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미지의 연속에 의해 의미론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웹 만화 『위대한 캣츠비』는 이러한 만화의 본래 힘에다가 마우스로 끌어내리며 읽어야 하는 웹 형식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서정성을 확보한다. 종래의 출판만화는 1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어가는데 책의 형식인 반면, 『위대한 캣츠비』는 1회를 마우스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읽는 두루마리의 형식을 취한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세로 읽기는 한 회씩 만화를 연속

성이 강한 이미지의 나열로 끊임없이 읽어내려가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배가시킨다.



그림1. 1부 10화 『수컷의 몸값』<sup>3)</sup>

1부 10화 『수컷의 몸값』을 보면, 6년을 사귀 여자친구 페르수가 떠난 뒤 결혼압박에 시달리는 캣츠비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선이라는 여자

3) 다음, <http://cartoon.media.daum.net>, 이하 인용시 같은 곳에서 발췌함.

를 만나게 되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잠이 깬을 때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눈을 뜬다. 페르수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가 절친한 친구이자 함께 사는 하운두를 생각하며 눈을 뜨는 이 장면은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가 점점 흐려졌다가 다시 진해지는 방법으로 캣츠비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세로로 읽는 독자는 캣츠비의 깊은 절망과 상처, 쉬고 싶어하는 심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내듯 세로로 읽는 방식은 주인공의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해 주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루마리 형식의 만화 읽기는 만화가가 한 장면을 여러 칸으로 늘려 독자의 호흡을 길게 조절할 수 있어 긴장감을 끌고 나가는 데 출판만화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위대한 캣츠비』가 서사 중심의 만화이면서도 칸을 세세하게 분할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칸을 배제하고 여백을 가능한 한 많이 살리고 있는 것도 서정성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 만화에서 칸은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만화는 칸의 구분을 통해 공간이 구별되고, 시간의 흐름을 갖게 되다 보니 가능한 한 많은 칸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대한 캣츠비』에서 칸은 한 줄에 한 칸씩,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독자로 하여금 연속적인 읽기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고, 긴장감을 조성시키며, 여백을 통한 서정을 느끼게 해 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문학에서 순수 서정시가 포괄의 원리가 아니라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아름다운 정서를 형상화하기 위해 그 효과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요소를 모두 버리는 배제의 원리 위에서 형성<sup>4)</sup>되는 것처럼 『위대한 캣츠비』에 나타난 의도적인 칸의 배제는 감성을 창조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칸의 배제가 가져오는 효과는

4) 정한모,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96, 60쪽 참조.

『위대한 캣츠비』의 웹 만화와 출판 만화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그림-2. 2부 7화 『애인』

2부 7화 『애인』에서 캣츠비는 선의 뺨을 때려 상처를 내고는 약을 발라주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의 뺨을 때려보라는 선의 강요에 못 이겨 얼떨결에 뺨을 때리기는 했지만, 막상 선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 가슴 아픔, 자신에 대한 미움 등이 뒤엉켜 덜

덜 떨리는 손으로 연고를 발라주는 장면이 웹 만화에서는 한 줄에 두 칸씩, 총 네 줄에 걸쳐 여덟 칸이 규칙적이고 대칭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장면은 잘 정제된 칸의 배열을 통해 복잡한 캣츠비의 심정이 눈물과 선의 얼굴에 붙은 반창고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 줄에 두 칸씩 똑같은 크기의 칸을 병렬 배치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단행본으로 나온 출판만화의 같은 부분<sup>5)</sup>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칭적 구조가 사라지고 페이지의 넘김으로 인해 호흡의 단절을 가져와 캣츠비의 복잡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연색 컬러의 사용, 칸의 크기 변화, 글씨의 위치 및 크기 변화 등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성을 『위대한 캣츠비』의 서정적 요소로 들 수 있다. 천연색 컬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캣츠비』가 웹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웹 상에서는 컬러 만화를 연재하는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만화가가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다. 또한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는 웹 만화의 경우, 현란한 영상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흑백보다는 컬러가 독자를 자극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파스텔톤의 그림책같은 『위대한 캣츠비』는 주인공들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배경을 검붉은 색으로, 회상을 처리할 때는 흑백이나 단조로운 단색으로, 캣츠비와 하운두가 사는 판자촌과 골목길을 빛바랜 초록색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이러한 컬러의 사용은 내레이션이나 말풍선이 없이 연속된 이미지만으로도 이야기와 감수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위대한 캣츠비』에는 감정, 절망, 공포 등의 점층적인 고조를 드러내기에 웹 상에서 칸의 모양과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감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5) 강도하, 『위대한 캣츠비』제2부, 애니북스, 2005, 135-137쪽.

이와 같이 『위대한 캣츠비』는 두루마리 형식의 읽기와 의도적인 칸의 배제와 정렬, 영상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서정성을 획득하여 이미지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있다.

### 3. 3중 구조에 따른 서사적 층위

본 장에서는 『위대한 캣츠비』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서사적 층위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대한 캣츠비』에는 서정적 효과가 극대화되어 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탄탄한 스토리가 더해져 성공적인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위대한 캣츠비』에는 한 개의 중심 플롯과 세 개의 보조 플롯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중심 플롯과 보조 플롯을 합쳐, 캣츠비, 페르수, 선, 하운두의 네 명의 주인공의 등장한다. 세 개의 보조 플롯은 중심 플롯의 단조로운 멜로 이야기를 좀 더 복잡하게 얽히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긴장감과 박진감을 더해 주고 있다.

중심 플롯은 캣츠비와 페르수의 이별과 캣츠비와 선과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이다. 6년을 사귄 페르수가 어느 날 넥타이를 선물하며 결혼 통보와 함께 이별을 고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선과의 사랑을 만들어나가는 캣츠비의 이야기가 중심 플롯이다.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캣츠비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페르수와 그런 그녀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앙금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캣츠비, 그런 그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옆에서 지켜봐 주고 있는 선의 이야기가 『위대한 캣츠비』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이끌어 나간다.

첫 번째 보조 플롯은 하운두와 몽부인, 몽부인 남편의 묘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외로 벌이를 하는 하운두는 어느 날 몽부인을 만나

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중 하운두는 몽부인의 남편에게서 자신의 부인을 유혹해 달라는 이상한 제안을 받게 된다. 몽부인을 유혹하기 위해 애쓰던 하운두는 결국 이 제안이 몽부인과 몽부인 남편이 짝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다. 이 보조 플롯은 2부 14화에 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심 플롯과 함께 진행된다.

두 번째 보조 플롯은 페르수와 그녀가 결혼한 남편 부르독과의 이야기이다. 페르수는 돈이 많고 전 부인에게 집착하는 중년의 남자 부르독과의 결혼 생활에서 안정을 찾지 못한다. 돈을 보고 결혼한 페르수와 젊고 예쁜 여자를 보고 결혼한 듯한 부르독과의 결혼 생활을 보기도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러던 페르수가 어느 날부터 부르독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되고, 결국 페르수는 임신하게 된다. 부르독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이면서도 임신한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보조 플롯은 3부 4화에서부터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나간다.

세 번째 보조 플롯은 하운두와 페르수의 이야기이다. 세 번째 보조 플롯은 『위대한 캣츠비』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보조 플롯은 중심 플롯과 첫 번째, 두 번째 보조 플롯이 진행되는 동안 물밑에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반전을 노리면 수면 위로 올라와 반전을 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년 전 하운두와 페르수, 캣츠비가 첫 만남을 가졌던 미팅에서부터 하운두는 페르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운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페르수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에도 하운두의 집착은 여전했으며, 결국 하운두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내막이 4부 22화에서부터 밝혀진다.

『위대한 캣츠비』는 중심 플롯이 자칫 늘어질 수 있을 때마다 보조 플롯이 2부, 3부, 4부에서 하나씩 도발적인 사건을 일으키며 흥미롭고 풍

부한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 영화에서 보조 플롯이 중심 플롯의 주제 의식을 갖지만 다르게, 이왕이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영화의 주제가 변주되면서 더 강화되는 것처럼<sup>6)</sup>, 『위대한 캐츠비』의 보조 플롯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캐츠비에 대한 페르수의 이기적인 사랑, 캐츠비에 대한 선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운두와 캐츠비의 우정, 페르수에 대한 하운두의 집착적인 사랑, 몽부부의 스틸을 즐기기 위한 위험한 사랑, 페르수와 부르독의 물질적 사랑과 용서 등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사랑에 대한 다양한 변주를 만들어냄으로써 『위대한 캐츠비』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롯 구성을 바탕으로 『위대한 캐츠비』의 서사적 층위를 살펴볼 수 있다. 『위대한 캐츠비』의 서사적 층위는 3중 구조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현실적 층위, 위선적 층위, 몽환적·환치적 층위이다. 『위대한 캐츠비』에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삼각형의 구조로 반복되어 일어난다.

현실적 층위는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현실 관계를 일컫는다. 이 층위에는 캐츠비와 선, 캐츠비와 페르수, 선과 페르수가 형성한 삼각 구조가 있다. 여기에는 캐츠비와 선, 캐츠비와 페르수가 각각 둘만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욕망이 담겨있다.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은 상상계와 상징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주체가 제일 먼저 형성되는 상상계는 이중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중관계는 주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자기’를 발견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자기 바깥의 모습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다.<sup>7)</sup> 캐츠비는 페르수

와의 이중관계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하려 했지만 일방적인 이별을 통한 소외를 경험했다. 이후 캐츠비는 선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관계에서도 그는 소외를 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2부 7화에서 보면 캐츠비는 선에게 ‘사랑을 버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더 이상의 상처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 또한 3부 13화에서 캐츠비는 선을 ‘나의 여신’으로, 3부 14화에서는 ‘과거를 미래로 바꿔준 여자’, ‘내 곁에 있어줄 여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타인을 통해 느끼고 싶어하는 캐츠비의 모습이다. 선과 페르수는 캐츠비의 현재 애인과 옛 애인의 관계이다. 선과 페르수는 캐츠비를 사이에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전형적인 멜로 스토리라인을 구사한다. 특히 임신한 페르수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선에게 캐츠비와 헤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층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꼭 진실은 아니라는 위선적 층위에 의해 붕괴되게 된다.

위선적 층위는 『위대한 캐츠비』에서 두 가지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캐츠비와 그를 속이고 있었던 하운두, 페르수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몽부인 영감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활했던 하운두와 그를 속이고 있었던 몽부인, 몽부인 영감의 관계이다. 위선적 층위는 현실적 층위에 있던 캐츠비에게 그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운두 역시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앞에 내던져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캐츠비는 하운두에게 속임을 당하고, 하운두는 몽부인 영감에게 속임을 당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6) 로버트 맥기, 고영범·이승범 옮김,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지, 2002, 334쪽.

7)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상상계와 상징계로 구분한 사람은 라캉이다. 그는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체의 생성 과정과 주체의 존재 구조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욕망의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상상계에서는 자아와 대상만이 존재하며, 자아

는 중개자를 인식하지 못한다. 상상계의 본질은 이중관계, 거울 속의 반복, 의식과 의식의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대립관계이다. 라캉은 상상계의 특성인 직접적인 이중관계를 보여주는 단계로 거울단계를 제시한다. 거울단계는 주체를 형성하는 기능에 의해 최초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아니카 르메르, 이미션 옮김,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8, 259쪽.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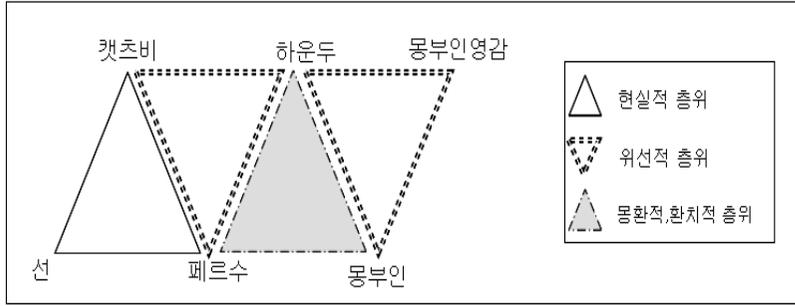


그림-3. 『위대한 캣츠비』의 서사적 층위

위선적 층위는 라캉의 상징계와 유사하다. 상징계는 이중관계에서 벗어나 아이를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 주는 삼각형 구조를 확립하여, 아이에게 자아가 확실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sup>8)</sup> 자신과 페르수가 헤어졌던 것이 페르수의 의지도, 부르독의 욕심도 아닌 친구 하운두의 집착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캣츠비를 분노하게 하였다. 그동안 캣츠비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페르수에게 냉담하고 모멸할 수 있었다. 하운두, 페르수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이 소외되었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캣츠비는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공격적인 행

8) 상상계를 거쳐 상징계로 들어선 아이는 어머니와의 직접적이고 거리감없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상계 속에서 아이는 어머니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원할길 바라고, 어머니의 전부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이가 어머니의 전부가 될 수 없고, 어머니의 욕망이 아이를 통해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분리시킬 중개자가 필요하다. 라캉은 이 중개자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정했다. 아버지가 가족의 삼각형 구조를 확립하는 상징적 범으로써 작용하게 되면, 아이는 그 자신이 독립된 개체로서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캉은 상징의 차원이란 이중(二重)관계로부터 삼중(三重)의 중개된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때 자아가 확실하게 존재하게 된다고 했다. 아니카 르메르, 앞의 책, 105쪽.

동을 드러낸다.<sup>9)</sup> 4부 23화와 24화에서 캣츠비는 하운두를 죽이고 싶어 하는 타인에 대한 강한 부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욕망을 가진 주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위선적 층위에서 캣츠비를 기만한 하운두 역시 캣츠비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늘 캣츠비보다 한 수 위로 보이던 하운두 역시 몽부인과 몽부인 영감의 삼각 구조 속에서 캣츠비와 같은 소외를 겪게 된다. 하운두는 몽부인 영감의 제안으로 몽부인을 유혹하려 했지만, 점차 빠져드는 몽부인에게서 헤쳐 나오지 못하게 된다. 결국 몽부부의 게임 속에서 자신이 사랑한 몽부인의 실체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하운두는 자살이란 극단적 처방으로 자아에 대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몽환적· 환치적 층위는 『위대한 캣츠비』가 만화라는 장르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만들어 낸 구조이다. 만화는 상상력이 120% 발현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초현실적인 서사구조가 가능하다. 4부 22화 『인질의 시간』에서 밝혀지는 하운두의 고백을 듣다보면 과연 하운두가 사랑한 몽부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 것인가, 몽부부의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다. 하운두와 몽부인의 관계는 자연스레 하운두와 페르수의 관계로 환치되면서 몽(夢)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몽환적인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3]에서 보면 몽환적· 환치적 층위의 삼각 구조에서 몽부인과 페르수가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하운두는 페르수에 대한 일종의 고착<sup>10)</sup>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9) 상징계의 역할은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실현시키고 그의 성적· 공격적인 본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징계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효과를 띠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의 원인이 발견된다. 이 공격적인 행동에는 시기, 강한 질투, 실제적인 공격, 자아의 부정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치명적인 부정 등이 포함된다. 위의 책, 266쪽.

10) 고착은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의식이 한 사물이나 대상에 얽매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현상이다. 위의 책, 229쪽.

하운두에게 욕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삶을 지속시켜 나갈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몽부인이 곧 페르수였던 하운두는 페르수에게 고착되어 자살을 택한 것이고, 캣츠비는 페르수에게서 벗어나서 또 다른 욕망의 동인인 선을 찾았기에 삶을 반복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몽환적·환치적 층위는 『위대한 캣츠비』의 결말에 극적인 반전을 가져왔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는 서사적 층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위대한 캣츠비』는 한 개의 중심 플롯과 세 개의 보조 플롯이 변주를 일으키며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 현실적, 위선적, 몽환적·환치적 층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극적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서사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바라봄과 보여짐의 충돌을 통한 관계 맺기

본 장에서는 『위대한 캣츠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고통의 과정을 주체의 바라봄과 보여짐의 분열 과정<sup>12)</sup>을 통해 살펴보고

11) 고착상태에 머물러 상황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주체는 소외된 신경증 환자에 해당된다. 고착에서 벗어나 대상이 허구임을 깨닫고 다시 또 연기된 대상을 향해 가는 것, 대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끊임없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반복없이 삶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다.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 이론』, 민음사, 1995, 79쪽 참조.

12) 이에 대해 라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말은 물론 내가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와 언급된 ‘나’, 즉 말하는 주체와 언급당하고 있는 주체는 다르다는 것이다. 말하는 ‘나’는 바라보는 주체요, 말해진 ‘나’는 바라봄을 당하는 주체이다. 거짓말을 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즉 ‘나’라는 주체 속에서 바라봄과 보여짐이라는 두 개의 주체가 있다. 그래서 라캉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

자 한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은 타인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경험하고 규정하는 것은 타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거나 제한을 가하고 허용하거나 거부하게 된다.<sup>13)</sup> 그러나 바라보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 맺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이렇게 『위대한 캣츠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만으로 상처를 주고받던 등장인물들이 보여짐의 시선을 깨닫게 되면서 한 걸음 성숙해지는 성장의 과정을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을 구사하고 있다.

『위대한 캣츠비』의 인물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캣츠비와 페르수, 선은 고양이로, 부르독과 하운두는 개로, 몽부부는 곰의 형상을 하고 인간을 대변한다. 같은 고양이이면서도 페르수와 선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부 18화 『앙꼬없는 빵』편에서 선은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맛인 편의점 빵을 좋아한다. 속이 들어있지 않아 겉으로 맛을 예측할 수 있는 빵을 좋아하는 선은 그녀의 눈에 보이는 캣츠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에 반해 페르수는 고급빵집에서 속이 서로 다른 고로케 두 개를 집어든다. 같은 고로케

르트의 통합된 주체를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식으로 바꾼다. 바라보기만 하는 주체는 보기만 하는 주체로서, 보여짐을 당하는 주체를 상정하지 않은 셈이다. 보여짐을 모르는 주체는 왜 위험한가. 그것은 아직도 거울 단계에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의 책, 79쪽 참조.

13)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은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밖으로의 초월을 가능케 해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성은 타인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타인과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인을 인간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를 열어주고 지배관계를 벗어나 서로 섬기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 소통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본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41~143쪽 참조.

이면서도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빵을 좋아하는 것이다. 캣츠비에게 페르수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랑하는 여자인 것처럼 말이다. 하운두 역시 마찬가지이다. 3부 15화 『빈티리의 행복』에서 하운두는 “순대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김밥에 호감이 있을거야.. 서로 다른 속을 가진 튀김들도 마찬가지.. 서로의 양꼬가 궁금해 미치겠지. 내 눈엔.. 그게 보여”라고 말한다. 반면 캣츠비는 입사 면접시험에서 돈이 필요하니 일을 시켜달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속이 그대로 보이는 빵과 같은 인물인 것이다.

페르수와 하운두는 백조처럼 우아하고 도도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속은 오리인 존재로, 마치 속이 다른 빵과 튀김 같은 존재로 형상화된다. 반면 캣츠비는 누구나 오리인 줄 알지만 실은 백조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존재로, 마치 애벌레에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는 존재, 선이 있다.

캣츠비와 선은 타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C급’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바라봄을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캣츠비와 선과는 달리, 페르수와 하운두는 바라보는 시선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 타인에 의해 자신이 바라봄을 당하는 시선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페르수는 결혼 후 캣츠비를 찾아가 사랑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캣츠비가 “내 눈엔 니가 괴물로 보여”(2부 9화『친구라는 호칭』)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캣츠비의 눈에 괴물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 즉 페르수는 바라봄을 당하는 시선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지금껏 캣츠비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했던 페르수 그 이후 캣츠비의 시선을 피해 그의 그림자가 되어 늘 뒤를 쫓는 존재가 된다.

캣츠비와 선이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결말을 맺는 관계로 지속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페르수가 캣츠비의 그림자가 된 이후 캣츠비는 더 이상 선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페르수를 끄집어 내 담판을 짓기보다, / 선의 시선에서 페르수의 존재를 감추는데에만 신경을 썼어. / 그럴수록 더 지독하게 달라붙고 대담해지는 페르수.. / 언제부턴가 선을 만나도 선이 보이지 않았어. / 페르수의 조용한 뒤쫓음에 귀를 기울이고 / 모퉁이와 그늘진 곳의 구멍난 시선을 의식하느라 / 선을 보지 못했어.(4부 16화『폭설』)

떨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가 된 페르수만을 바라보게 된 캣츠비는 그 만을 바라보고 있는 선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페르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바라보지만 캣츠비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은 ‘벽을 사랑한 남자’ 이야기를 남기고 캣츠비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벽을 사랑한 남자’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캣츠비를 사랑하는 선 자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림자가 된 실체없는 페르수를 바라보고 있는 캣츠비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바라봄과 보여짐의 충돌을 통해 충격을 받는 인물은 하운두라고 볼 수 있다. 연애도 사랑도, 타인과 관계 맺기도 늘 가볍게 여겼던 하운두에게 페르수는 예외적인 존재였다. 자신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페르수를 기필코 쓰러뜨리겠다는 하운두의 집착은 고착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고착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페르수의 시선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왜 몰랐을까? / 페르수가 바라볼 나를 / 허우적대며 기를 쓰는, 나의

발악을.. / 지친 백조와 나의 고립을 / 백조의 본색을 / 끝까지 지켜보  
고 있었다 / 그당시 난, 페르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낼 수 없었  
어 / 그 표정은 그랬어 / 이미 페르수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어 / 내가  
백조로 위장한 오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얘기였어.(4부 18화 『  
오리와 백조』)

페르수 역시 자신처럼 타인과 관계 맺기를 가볍게 여길 것이라 생각  
했던 하운두는 예상치 못한 시선을 받게 되자 페르수에 대한 애증과 고  
착을 키워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왜곡된 하운두의 관계 맺기는 몽부  
부와의 관계를 통해 더 큰 시련을 겪는다. 몽부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운두를 바라보던 몽부인 영감(3부 7화 『주문의 마술』), 비밀  
의 방에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벽을 실감한 하운두에게 키스를 하는  
몽부인(4부 7화 『비밀의 방』), 게임이 끝난 후 사진첩을 꺼내 사진 속의  
하운두 모습을 보여주는 몽부인 영감(4부 13화 『가면 속의 얼굴』)의 행  
동은 결국 하운두가 몽부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대상화된 놀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게임 속의 나. / 나. / 사진 속의 나. / 게임 속의 나. / 정말.. 나였나?  
/ 내가.. 나인가? / 나가.. 나인가? / 나는.. 원래 있나? / 원래.. 있었나?  
/ ... / ... (4부 7화 『가면 속의 얼굴』)

이제 그 놀잇감이 된 자신을 게임판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하운두,  
사진첩 속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하운두는 비로소 페르수  
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시 운명과 같은 사랑을 하러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떠난다.

이렇게 『위대한 캣츠비』는 볼 줄만 알았던 페르수와 하운두, 바라보고

보여짐을 알지만 서로 바라보는 대상이 어긋났던 캣츠비와 선이 바라봄  
과 보여짐의 과정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한층 성숙해진 성장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위대한 캣츠비』는 사랑을 시작하고 상처받는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포착하여 이들의 내적 욕망을 그려내고 극복해 나  
가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웹 만화 『위대한 캣츠비』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하여 이  
작품이 가지는 특성과 성공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요인은 웹의 매체를  
이용한 서정성 획득, 3중 구조에 따른 서사적 층위, 등장인물들의 내적  
성장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웹 만화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대한 캣츠비』의 두루마리 형식의 읽기는 웹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연속성이 강한 이미지를 나열함으로써 끊임없이 읽어내려가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배열함으로써  
여백을 통한 감성을 창조해 냈으며, 천연색을 사용하여 영상성을 표출함  
으로써 서사적이면서도 서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위대한 캣츠비』에 등장하는 세 개의 보조 플롯은 단조로울 수 있었던  
멜로 이야기를 좀 더 복잡하게 얽히게 함으로써 사랑에 대한 중심 플롯  
을 다양하게 변주시키면서 이야기에 풍성함을 더해주었다. 여기에 현실  
적 층위, 위선적 층위, 몽환적·환치적 층위의 3중 서사적 층위가 유기  
적으로 결합하면서 극적 긴장감을 작품의 끝까지 팽팽하게 유지시켜 주

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바라봄과 보여짐의 과정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한층 성숙해지는 성장의 과정을 담아내어 사랑에 대한 인간의 내적 욕망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독자들의 감수성을 올리는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확립시켰다.

『위대한 캣츠비』는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만화가 가지는 원작산업의 비중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탄탄한 서사와 아름다운 서정을 동시에 획득하여 웹 만화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였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 시장성을 검증받았기에, 뮤지컬과 드라마로 제작되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성과도 일궈냈다. 앞으로 웹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치밀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는 완성도 높은 웹 만화의 더 많은 등장으로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에 풍성한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강도하, 『위대한 캣츠비』, <http://cartoon.media.daum.net>

강도하, 『위대한 캣츠비』, 애니북스, 2005.

### 2. 논문 및 단행본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로버트 맥기, 고영범·이승범 옮김,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지, 2002.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옮김,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8.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8.

자크 라캉, 권택영 엮음,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9.

정한모,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96.

Andrew Glassner, *Interactive Storytelling*, A K Peters, 2004.

Carolyn Handler Miller, *Digital storytelling*, Focal press, 2004.

The study on storytelling structure of web comics *The Great Catsby*

Lee, Sang-Min

Comics is representative popular culture, which makes communication of every social stratum possible. In addition, comics performs an important role as original creation source that can be adopted as diverse forms of creation in culture content industry application. As emergence of digital age, comics becomes to be published in the Web, which is called 'Web comics'. The 『Great Catsby』 is the first of this kind. Web comics becomes very popular due to its different features in formation and storytelling, and the explosive support of populace.

In this paper, I derived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Great Catsby』, which makes the 『Great Catsby』 popular and successful. The first is the acquiring of lyricism by using features of Web media, the second is the organic layers of narrative and the third is the storytelling of internal growth of dramatics personae.

The 『Great Catsby』 makes continuous reading possible by utilizing the scroll feature of Web media and generates the sensitive through spatial vacancy by deleting compartment. In addition, the 『Great Catsby』

maximizes visibility by drawing with color.

The 『Great Catsby』 makes the story more lively by entangling three sub-plots to the monotonic melodrama of main plot. Here, organic coupling of 'realistic layer', 'hypocritical layer', 'dreamlike layer; and 'exchange layer' increases the dramatic suspense of the 『Great Catsby』. In addition, the 『Great Catsby』 includes the process of internal growth of dramatics personae in development of relationship with others.

---

#### Key Words

The 『Great Catsby』, Web Comics, storytelling, features of Web media, organic layers of narrative

\* 위 논문은 2007년 4월 30일에 투고되어, 2007년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